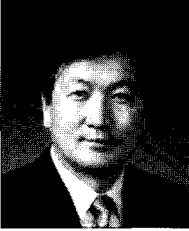


S - 4

## Esthetic Preparation



이 종엽 (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)

서울치대 졸업  
서울치대 보철과 치의학 박사  
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 
심미치과학회 회장

치아를 수복할 경우 환자가 치아본래의 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치아를 치관색으로 수복하는 방법은 composite resin 충전이나 metal bond에 의한 full coverage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다. 그러나 metal bond로 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다량으로 건전한 치질을 삭제하는 일도 많았다.

현재는 porcelain 및 접착성 resin의 발달과 더불어 설계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full coverage의 형성량보다 훨씬 적은 삭제량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.

다시말해서 심미를 먼저 중요시해야 하는 경우, 종래에는 건전 치질을 다량 삭제한 후 full coverage했던 증례라도 preparation design의 변화와 접착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에 의해 형성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.

몇가지 임상증례를 통해서 가장 보존적이면서도 심미성을 강조한 preparation design들을 소개하고자 한다.